

# 구미 3세 친모가족, 경찰 수사 반박해

### 석씨 2차례 제왕절개로 자연분만 불가능

### 아이 바꿔치기 및 계획범행 절대 아냐

### 경찰, 명확한 증거 확보 못해 수사 진척 없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자 사망 사건과 관련, 친모인 석모(48세)의 가족이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딸 김씨)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은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씨 가족은 “수 많은 루머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석씨 가족은 “경찰은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석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며 “석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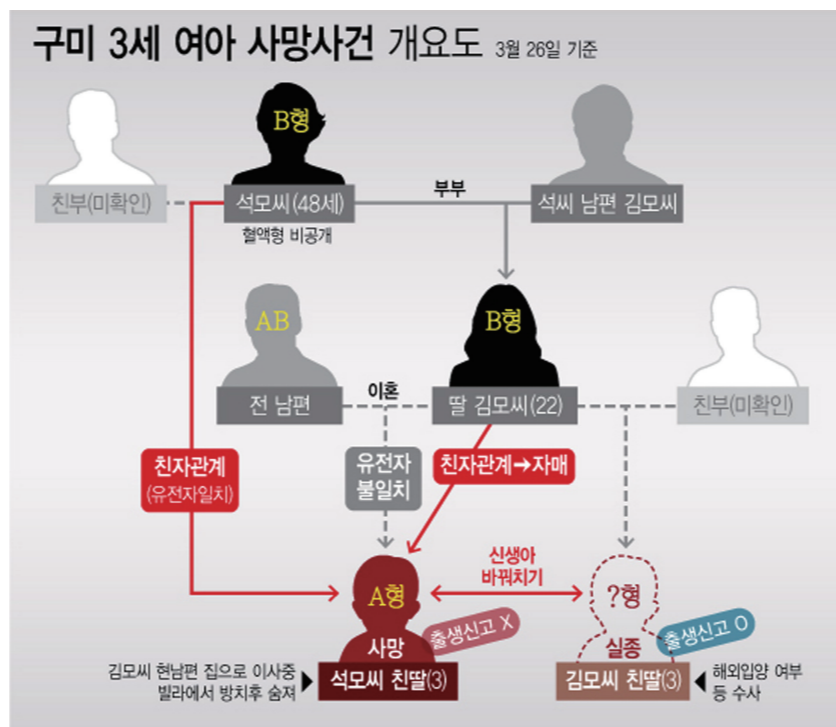
딸 김모(22)씨 출산 당시 신생아 인식표가 끊어져 있었다고 입증하는 사진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석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

석씨의 가족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석씨 가족이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근거를 토대로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모씨 현남편 집으로 이사중 빌라에서 방치후 수사

친자관계 (유전자 일치)

유전자 불일치

친자관계 → 자매

신생아 바꿔치기

출생신고 X

사망

출생신고 O

해임임명 여부 등 수사

## 광주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접수한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월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윤희기자

## 무안소방서, 임야화재 예방드론 공중감시단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은 최근 강풍주의보와 타 지역 건조주의보가 계속됨에 따라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드론을 이용한 공중 감시단을 운영한다.

무안 지역은 최근 5년간 봄철에 연평균 42%를 초과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계절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소각이나 논 밭둑 소각이 원인이 된 화재가 57.6%를 차지하고 있다.

장소 중에서도 임야나 옥외에서 발생한 화재가 42.8%로 가장 많은 편이다.

무안소방서는 작년부터 무안군과 한마음SKY항공교육원과 3~5월 사이에 집중 감시 협약을 맺었고 올해는 초당대학교 항공운항과, 항공드론학과도 협약을 맺어 다양한 임야화재 감시활동을 펼친다.

무안군 417명의 이장단과도 마을 방송과 불피움 행위 제도 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임야화재 예방활동을 펼친다.

박원국 소방서장은 “봄철 임야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 집중적인 계도, 홍보 활동과 더불어 드론과 항공 기술을 활용해 보다 폭 넓은 방법으로 넓은 지역에 입체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완도해경, 신임 구조대원들과 구조역량 강화 훈련 매진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4일 구조대 직원과 구조직별 신임경찰관이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12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12주기 훈련은 구조대원들의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개인 능력과 팀별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구조대원으로서 전문성 강화와 팀워크 향상을 위해 기존 완도해경 구조대원들과 함께 인명구조술, 맨몸수영, 구조장비 운용, 로프 훈련, 수중 수색구조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선박 침몰·전복사고 등 항포구와 방파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해상추락사고 위주로, 수색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정관수 완도해경구조대장은 “신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배들이 지도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 순천 연향동 페인트가게 화재 현장 철거 중 또 화재 발생



30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 한 페인트가게 화재 현장을 철거하던 중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순천소방서, 소방관 39명 소방차 13대 동원해 진화  
철거 작업 진행 중 발발 된 것으로 추정, 정밀 조사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건물 철거 중 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순천소방서는 30일 오전 11시 37분께 연향동의 페인트 가게 화재 현장에서 불이나 소방관 39명과 소방차 13대를 동원해 11시 46분께 초진하고 4분 뒤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는 상태다.

순천소방서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중 발화돼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하고 있다.

앞서 이 가게에서 17일 오후 6시 28분께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페인트 등을 모두 태우고 18일 오전 2시 50분까지 잔불 정리가 이뤄졌다.

합동감식반은 19일 주변 건물 등에 찍힌 CCTV 화면을 찾아내 최초 발화지점을 확인했다. 감식반은 초기 발화 원인과 화재가 번진 원인 등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